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농 산업 경 제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7월20일(화)

의사일정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2. 전라북도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조례안심사의건
3.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4.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5. ECO융합섬유연구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1면
2. 전라북도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조례안심사의건.....13면
3.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14면
4.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30면
5. ECO융합섬유연구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36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철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1년도하반기 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병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혁신성장산업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저희 혁신성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현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나윤화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혁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16쪽에 보면 혁신산업 육성 기반 강화 내용 중에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거하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2022년도에 하겠다는 건가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지금 드론산업 정책연구과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훈열위원 수립하고 있어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최훈열위원 굉장히 늦은 거 아닙니까?

현재 드론산업이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드론산업이 거의 90%가 중국에서 우리 제품도 수입해다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이 부분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지금 드론산업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사실 전라북도

에서 시작을 했고요, 산업부에서는 2018년부터 신산업으로 드론산업을 분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2017,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들을 진행해 왔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드론산업들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산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부품이라든지 소재부품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보다, 이게 제공시간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시간이 보통 일반 리튬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 되는데 이걸 2시간 정도 제공할 수 있는 수소파워팩을 개발하는 그런 R&D사업들을 저희들은 또 지원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남원지역이 LX와 해서 드론 시범단지 교육장으로 지금 지정을 받았고, 진안 같은 경우는 국토부 시범실증단지로서 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는 안티드론이라고 해 가지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불법드론으로 인해서 정보를 주요 국가기관이나 기밀정보를 취득을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해서 지금 규제자유특구 사업 쪽에 신청할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 정책연구과제를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계획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이런 거예요.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생태계도 굉장히 미약하고 아까 말한 대로 국장님께서 새롭게 준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새로운 영역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선제적인 투자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에 아까 말한 대로 리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소연료전지로 해서 운용시간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과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2017년도부터 그렇게 해 왔고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유망한 사업영역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드론산업이라는 것은 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재면 소재 쪽에 지원을 하고 부품이면 부품 쪽에 지원을 하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대응을 해 왔고 부분적으로 산업을 육성시켜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책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는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서로 어떤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신산업으로서의 드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체계화시키겠다라는 게 이 사항에 대한 골자입니다.

그래서 늦은 것 같습니다만…….

○**최훈열위원** 간단히 하게요, 너무 시간을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결국 요지는 아까 제가 만시지탄이라는 말을 했는데 늦었지만 그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하고 소기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싸움입니다, 시간싸움.

안이하게 해 가지고 여기서 말한 대로 용역 세우고 또 연구용역 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시간, 이 사업은 정말 시간싸움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7쪽에, 37쪽 보셨나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최훈열위원**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종합계획 수립 내용이 있어요.

그 계획을 어디 용역 맡겨서 수립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이 사항은요, 사실 새만금지역에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걸 새만금개발청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6억이라는 사업비 중에

2,500만원을 부담해서 같이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같이 도에서도 참여를 해서 도의 산업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한 계획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최훈열위원 그러면 정확한 사업계획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위원 안녕하세요? 두세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요, 혁신도시 활성화 있습니다. 완주, 전주 경계해서 있는데요, 여기 사업추진 내용 보면 대략 한 280억 정도가 있고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혁신도시에 완주 쪽이든 전주 쪽이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기지재호수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기지재호수 근처에 주차할 만한 곳을 작년 11월 이후에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 사업추진 현황은 여기 사업내용에 없는데 일단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려면 기본적인 주차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 도가 직접 못하는 사업이라면 시·군과 협력해서 주차장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사실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임시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구

분을 해서 공공기관 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한 10개 기관에, 한 3,907면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무료개방을 현재는 추진하고 있고요.

○두세훈위원 홍보가 됐나요? 대외적으로 플래카드 해서?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세훈위원 그 관련된 자료 일단 주시고요.

말씀하세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서 공사 중인 면수가 지금 2개소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1개 사업은 지금…….

○두세훈위원 그 부분도 자료 요구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완료를 했고요, 자료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또 이와 함께…….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 관련해서 올해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진행되는 사업비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올해 진행되는 사업비는, 제가 별도로 그 사항은 자료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와 완주군에다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 진행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지면 안 되

니까요, 현재 주차 관련 올해 진행하는 사업비하고요, 우리 도가 내년에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에 건의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주차 관련해서 그 사업내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세훈위원**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요, 조금 전에 두세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문제가 비단 기지재 주변만은 아니거든요. 전체가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 또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위원님들께 전부 다 한번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추진했던 것,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것 이렇게 구분지어서 한번 상세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4쪽이고 보조자료 26쪽, 전북 테크비즈센터가 건물은 다 지어지고 이미 입주한 곳도,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이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

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운영주체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라고 돼 있는데 저희도 생소한 재단인 것 같고 한번 저희도 방문도 못해 봤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추진상황에 운영관리 조례 제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그 협약도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됐는가. 그리고 특구본부 입주 및 시설 인수인계 이것도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리고 개관식을 9월 중에 할 계획이라고 금후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센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현재까지 진행된 거 그리고 앞으로 계획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테크비즈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관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국주영은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도로 있잖아요. 이게 왕복 2차선이에요.

벌써 입주한 기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도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좁아서 예산 확보를 해서 반드시 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
국에 혁신성장정책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도시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도가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전주시
가 새로운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랑 같이 협력을
해서 도로문제를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상태로 놓아두지 말고 고민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
다.

그때 말씀하셔서 바로 전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 왔더라
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
지 또 저희 해당 건설교통국 관련 과하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서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주시 입장이 그런 입장이
라, 뭐냐면 그쪽이 보도를 축소해서 차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
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 차원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정을 통해서 가능
한지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
어서 저희 도에서도 또 저희 혁신국에서도
해당 과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필요합니다. 해서 그런 예산까지도 저희들
이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렇게 빨리 명
확하게 뭔가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들
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도 입주가 다 안 된 상
태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민원이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인권위원** 국장님, 22쪽 조선산업 체질
개선 및 신생태계 구축 관련입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및 타당성
용역이 나왔어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
다.

○**나인권위원** 자료 한번 쭉보시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목적선은 어떤 걸
말하나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특수목적선
이라고 그러면 특수목적을 가진 함정인데
요, 전문적인 용어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군
함, 그러니까 군함의 함정 같은 것들을 이
야기하고 있고요. 또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선, 그러니까 특수목적을 위해서 기관
에서 건조하는 배를 특수목적선이라고 이야
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각종 수산지도나 행정선
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군함 이런 것들을
특수목적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인권위원** 실제적으로 현재 군산의 조
선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출구전략으
로 기존에 했던 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새로운 산업

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어떤 틈새시장이
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군산 현대조선소가 대형선박에 대한 건
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블록제작 이런
것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산
업 형태로 조선산업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
니까 조선산업의 전반적인 생태계가 대기업
에서 수출을 끊는다거나 이러면 산업생태계
가 흔들리고 또 중단을 하다 보니까 군산사
태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중소형 특수목적선이라고 그런 것
은 대형함정이 아니라 중소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과 관련된 MRO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거기에 첨단산업 형태, 그러니까
첨단무기체계라든지 또는 첨단전자장비체계
로 이게 전환을 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 안
에 들어가 있는…….

○나인권위원 국장님, 그러면요, 현재 인
프라 구축도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
다.

○나인권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이 중심이
짙아요? 이 관련해서 지역으로는.

그러면 다른 데하고 또 경쟁이 되는 데는
특별히 없나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경쟁이 되는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부산지역에서도
사실 중소형선박 MRO를 지금 하고 있고
요.

그런데 저희들은 특수목적선으로 한정을
한 게 뭐냐면 행정지도선이라든지 행정선이
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는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시켜서…….

○나인권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고

통합적으로 하는 데가 있겠지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군 쪽하고도 이런 부분들
에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더라
는 말씀 올리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또 선박해
양플랜트연구소, 그다음에 기업, 또 군함이
나 행정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
자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업
이 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용역을 완료했고요,
산업부하고 해수부 쪽에 저희들이 가서 이
걸 예타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
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인권위원 국장님 말씀에 틈새시장, 새
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다른 데하고 경쟁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었는데 새로운 산업 틈새시장으로 해
서 조선해양 관련 사업을 하시고 준비 잘
하시고, 다만 그 용역결과나 책자 나왔으면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별도로
상세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다가 올려야 되는 그런 입
장이어서 갓 마무리를 지어서 지금 보고를
드린 상태여서 바로 준비해서 보고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주영은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철수 예, 한번 하시죠.

○국주영은위원 죄송합니다.

39쪽 보면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유치 완
주가 했잖아요. 옆에 보면 한국가스안전공

사 2021년 3월 이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어디 말씀, 다시 한번…….

○**국주영은위원** 39쪽 성과 및 개선사항에서 검사지원센터 유치(한국가스안전공사), 이거는 무슨 말인지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그래서 산업부 사업으로 해서 안전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3월달에 센터를 안전공사에서 공모를 유치를 했고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국주영은위원** 그 말이에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수소충전소가 있잖아요. 거기는 운영주체가 누구예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민간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사업의 경우는 저희들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거고요.

○**국주영은위원** TP가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그래서 TP한테 위탁을 줬던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하이넷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민자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의 일부분을 보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현재는 운영상에서 가스요금이 kg당 8,800원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들도 민간운영주체가 되지만 약간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지금 수소가 전라북도가 굉장히 비싼 거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아닙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kg당 8,800원의 입장이고요.

거기에서 약간의 지역별로 조금씩은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송거리, 수소를 이송하는 이송거리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 대산에서 가스를 가져오는데 이번에 완주·전주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한솔케미칼에서 완주 충전소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게 되면 부생수소를 연결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좀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kg당 8,800원에서 그 가격이 다운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운영비 내에 적자를 감소한 폭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kg당 8,800원의 요금은 동일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동일해요? 저는 좀 다르게 듣고 있어서, 전라북도가 좀 비싼 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그렇지 않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런 건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예.

○**두세훈위원** 수소 관련해서요, 내년도 사업추진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

니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23쪽, 보조자료는 86쪽인데요.

지금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어요, 두 군데가.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위원** 완주하고 익산하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송성환위원**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서 해외마케팅, 수출 일감 나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공동마케팅 같은 경우는 익산 같은 경우는 주얼리 특화단지가 저희들 지정을 받았고요, 완주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금형산업협회에서 지정을 받았습시다. 그 주관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송성환위원** 금형산업협회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그래서 사실 공동마케팅이라 하면 그 지역 내에, 익산이면 주얼리단지가 있고 여기 뿌리산업 특화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이라든지 국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에 소요되는 디자인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은 데가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은 건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

다.

○**송성환위원** 그러면 관련된 업체들을 더 단지 내로 유치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특화단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금후계획에 보면 신규 뿌리산업 특화단지 발굴 및 지정공모 대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이게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하는 데 있는데 매년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

또 익산이나 완주뿐만이 아니라 전주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읍도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됩니다.

○**송성환위원** 정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두 군데가 지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또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발굴을 하겠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그렇습니다.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지금은 익산하고 완주 쪽이 주얼리하고 그다음에 뿌리금형이라든지…….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 말고 내년에 할 만한 곳들이…….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전주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전주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전주 팔복동 산단에 있는, 뿌리기업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 그러면 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또 예를 들어서 뿌리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성환위원** 안 중요한 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뿌리산업은 말 그대로 뿌리예요, 뿌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강점도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전주 같은 경우도 현재 있는데 왜 올해 못했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걸 내년으로 미룬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지역을 나름대로, 지역 안배도 물론 해야 되고, 전라북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그걸 발굴해 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단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위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지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한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

금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해안가에 가면 조그만 배 있잖아요. 거기에 달려 있는 수중모터가 있죠? 추진동력 하는 수중모터로 해 가지고 배들이 있는데, 아시죠?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최훈열위원** 수중모터가 있는데 100% 다 일본 닛산 뭐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중모터 저거 수출 안 하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다 죽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들 정도로 전부 다 일본 제품이더라고.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보면 소부장기술자립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해양수산 쪽에 수중모터 하는 것이 일본 거 아니면 대한민국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효성에서도 모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일본의 어떤 특정제품 모터들이 엔진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위원** 현황과악 한번 해 보세요.

현황 있으면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안가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감을 느낄 정도예요. 일본에서 수출 안 하면 우리 해양산업 다 죽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전부 다 일본 애들 거거든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사실은 뭐냐면 그게 경쟁력이고요, 농기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농기계도 사실 일본산 농기계가 지역 내 농기계시장에 많이 잠식하고 있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트나 보트에 달려 있는 일본산 모터들이 아마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국내시장도 잠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도내에서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산업 쪽, 그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소재나 부품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도내에 보트나 수중모터나 그다음에 추진모터 쪽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현황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산 모터가 시장에 잠식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보고요,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말씀 올리고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가서 느낄 때는 공포감이, 전부 다 일본제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소부장기술자립화 지원사업 내용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알겠습니다.

소부장과는 별도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같이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자료 비즈센터 요청을 했는데 운영비 지원을 6억을 하잖아요. 6억이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계산을 해서 6억인가.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운영비 지원이.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운영주체가 행정업무 총괄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에 총인원이 몇 명인데 우리 전라북도 지역 출신이 몇 명이나 여기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가,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 현황과 그 밑에 시설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자회사라고 그랬거든요. 전문용역업체인데 이 업체가 가령 자회사면 그 자회사 있는 데서 그냥 일률적으로 와서 하는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흡수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니깐 이 부분도 현황을 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그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 운영비는 올해 5월부터 F&S로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2월분을 했고요, 내년도는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 드렸습시다만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을 하고 올해 입주율이 85% 정도 되거든요, 연말까지 끝나면. 내년도면 63개 기업들이 싹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도부터는 아마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아 들어가서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운영비를…….

○이한기위원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지원을 안 해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해서 전북특구본부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는 자회사입니다. 대덕에 있는 연구개발특구본부 F&S라고 하는 자회사가 거기 특구본부에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체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한 12명 정도의 관리인력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했고, 전체적인 연구개발특구본부의 운영인원은 12명에다가 한 20명 남짓하게, 지금 아직 정원은 확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그 속에 도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별도로 자료를 제가 받아서 채용인원, 그러니까 도내 인력을 채용했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말씀 올리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도내 인력이 채용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을 해서 도내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우리의 건물을 위수탁을 하면서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외지인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도 취업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좋은 자리에…….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도내 인력으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확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확인해서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철수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39쪽이고 보조자료 167쪽에 수소충전소가 업무보고자료에는 4개소 추가 구축 전주 두 군데, 군산, 부안 돼 있고 보조자료에는 전주, 부안, 김제 돼 있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다른 겁니다.

○나인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보조하셔서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는 다른 거다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집행부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 또 질의하실 사항들을 간단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혁신성장산업국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

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2021년도 혁신성장산업 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전라북도 산업계 전반이 어렵고 경제 또한 매우 어려워진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산업구조 개편에 우리 도만의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경제 자율주행 상용차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조례 안심사의견

○**위원장 김철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조례안심사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두세훈, 나인권, 최훈열, 이한기, 정호윤, 국주영은, 송성환, 김철수, 최영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철수** 두세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수** 두세훈 위원으로부터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2021년 6월 말 기준 425개소로 전국 1만9,256개소 대비 2.2%에 불과한 실정으로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세제·재정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견기업 및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21년도하반기 업무보고청취의견

○위원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3항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견을 상정합니다.

양균의 원장님께서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양균의입니다.

평소 전라북도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앞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이영미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문성식 단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 이영춘 센터장입니다.

금번 새로 부임한 전북디자인센터 남궁재학 센터장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 유기현 실장입니다.

과학기술진흥센터 김영권 센터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단 이송인 단장입니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상호 센터장입니다.

행정지원실 박기성 실장입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산업국 혁신성장정책과 송금현 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형 뉴딜성공, 혁신성장산업 육성, 유망기업 성장지원 등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올해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마련한 경영혁신 방안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실천해 전문성, 유연성, 자정능력을 갖춘 단단하고 일 잘하는 명품 TP로 거듭나 전북 산업과 기업의 성장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전북의 융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농산업경제위원회 하반기 전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를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수 양군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군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위원 디자인센터장님이 언제 취임하셨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언제부터 근무하시게 됐죠?

원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군의 4월 5일 취임했습니다.

○정호윤위원 디자인센터가 전임 원장님이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사퇴하시면서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디자인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원장님께서도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디자인센터가 센터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디자인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예,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십시오.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전북디자인센터 남궁재학입니다.

○정호윤위원 센터장님은 4월달부터 근무하셨으니까 업무나 이런 건 다 파악이 되셨겠네요? 그렇죠?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아직도 배울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난 석 달 동안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정호윤위원 센터장님이 배울 게 많이 있지는 않겠죠, 오히려 센터장님께서 잘 지도를 해 나가셔야 되는 입장이지니까.

센터장님 오시고 나서 전임 센터장님이 우리 전북디자인센터를 그동안 잘 운영해 오셨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선도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나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오셔서 기존의 전북디자인센터를 업무와 관련해서 쪽 파악을 해 보셨을 거니까 성과라고 하면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좀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아마 충분히 하셨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아직 3개월 동안 특별한 성과를 낸 건 없지만 지난 석 달 동안 저희 부서원들과 다 함께 저희가 디자인센터의 중장기발전을 위해서 준비

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을 통해서 저희가 전북 도내에서 산업디자인 관련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전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수로 나눠서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7월달 중에 원장님과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와고도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서원들이 전체가 같이 참여를 한 거 자체도 굉장히 큰 성과였고, 제가 테크노파크에 합류한 이후로 3개월 동안 저희 디자인센터에서 한 것은 일단 2020년에 저희가 사업 마련을 해서 2021년에 하기로 한 것들을 갖다 진행해 왔는데 그 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질 없이 진행은 잘 되어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련한 중장기 계획들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무선에서도 발전방향에 있어서 더 좋은 점이 있으면 찾아서 그거에 맞는 사업도 발굴해서 디자인센터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윤위원 제가 센터장님께 요청드렸던 질문의 취지에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센터장님, 우리 전북디자인센터가 산업디자인의 허브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을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디자인의 허브역할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북디자인센터 조례에 나온 설립 취지는 사실 여타 지자체들,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들처럼 전방위적 그리고

확장적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디자인센터의 경우에는 일자리 경제본부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업지원에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전북 도내 디자인 관련된 업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ECO융합섬유연구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한지 관련해서 또 문화관광 관련해서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도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렇지 못한 상태여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한데 묶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현재 지금 디자인센터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허브라는 단어에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윤위원 센터장님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자리 외에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과 준비가 되고 그러는 대로 도의회도 따로 찾아 뵙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감사합니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이 4월 5일날 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셨나요?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예, 4월 5일날 임용식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 처음 오신 건가요?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위원 원장님이랑 많은 분들 고생하시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정책기획단 단장님한테 직접…….

○위원장 김철수 예,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정책기획단장 이영미입니다.

○송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단 업무 중에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송성환위원 7월하고 11월에 중간, 최종보고회 계획하고 계시는데 7월달 언제 하죠?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7월은 내일 합니다. 위원님들 아마 연락이 갔을 거라고 봅니다.

○송성환위원 제가 그 위원회 위원이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할 텐데, 지금 회기 중이죠? 우리 의회.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송성환위원 회기 중인데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회기 중에 잡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이게 도랑 협의해서 잡기는 했는데요.

○송성환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은

참석하지 마세요라고 비춰질 수도 있어요. 회의 중인데 회기 중에 딱 잡아놓으면 그러면 여기 상임위를 빠지고 탄소산업위원회를 갈까요, 아니면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빠지고 상임위에서 할까요?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죄송합니다. 저건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송성환위원 그거 하나만 봐도 손발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송성환위원 지금 정책과제 발굴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3건을 했는데 그중에 20건은 사업반영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송성환위원 연도별로 구분이 좀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 보완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에는 표현을 못했는데요.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몇 건 발굴을 해서 몇 건이 사업화에 반영이 됐고 이런 자료가 없어서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지금 분과가 3개 분과입니다. 생태계고도화, 그다음에 상용화 촉진, 창업인력 양성.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게 생태계고도화 분과에서 탄소소재 및 제품 재활용 물류 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과제가 있어요.

지금 탄소소재가 많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되고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는 폐기하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고 보면 그 제품을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가져야 될 때가 됐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35쪽에 있는 두 번째 자료가 사실 그건데 지금 연구조합이 탄소산업연구조합에서 제안을 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용화에 집중을 했다면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일 발표에서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송성환위원** 제가 내일 못 가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성환위원** 이 정책과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주시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 재활용업체가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송성환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이번에 장수로 들어와요.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기사를 봤습니다.

○**송성환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송성환위원** 기사에서?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송성환위원** 아니, 이런 정책과제를 하려면 그런 업체도 좀 만나보고 하셔야지 기사 보고 했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송성환위원**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 해죠?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올해 연말까지.

○**송성환위원** 올해 12건, 이게 지금 12건

이…….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올해 것만.

○**송성환위원** 이게 올해 거예요?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송성환위원** 그럼 43건은 여기 자료에 없네요? 보조자료에도?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이게 상반기 것만 제출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전의 자료는 작년, 제작년에는 들어가 있고요.

○**송성환위원** 그럼 아까 자료 요구한 거 2016년에서 2020년 43건이 연도별로 어떤 정책과제가 발굴이 됐고 사업화에 반영된 것은 어떤 거고, 연도별로 해 주시고.

지금 올해 거 12건 중에 사업화가 반영이 됐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거죠?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그건 아직 아니고 발굴한 정도입니다.

○**송성환위원** 언제쯤 그게 사업화가 확정이 됩니까? 되고 안 되고가?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저희들이 그거는 계속 진행 중인 거라서.

○**송성환위원** 최종보고회 11월에 할 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그때도 제안 수준이고요, 거기서 중간에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송성환위원** 정책과제 발굴 실무회의를 일곱 번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일곱 번 한 것도 언제 어떻게…….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예, 분과별로 운영한 거.

○**송성환위원** 참석은 누가 했고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 보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79쪽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 기획 내용인데요. 원장님, 여기서 그린수소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수소를 그린수소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됩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린수소가요,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는 청정한 수소를 그린수소라고 합니다.

○**최훈열위원** 수소 자체는 이산화탄소가 없을 텐데…….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제로요. 전혀 없게 나온 게 그린수소예요.

○**최훈열위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설비를 그린수소라고 한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지금 지구온난화에 있어서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린수소가 앞으로 답일 것 같아요.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린수소를 이해할 때는 수소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수소 생산이 돼요. 재생수소라는 말도 있고 정제·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소를 생산하는 양식에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한 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소를 그린수소라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개념도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생산을 그린수소라고

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렇죠. 부연해서 그렇게 되죠.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금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지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지역에 전북, 인천, 강원, 포항이 수소클러스터사업으로 하나의 패키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재부에 신청 중에 있는데 지금 서로 각 지역마다 국가에 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미선정이 됐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수정해서 개정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서 지금 이달 말이나 8월 초에 다시 그걸 심의할 예정입니다.

○**최훈열위원** 심의 예정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셨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지서요?

○**최훈열위원** 아니,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최훈열위원** 아까 말한 대로 그린수소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를 원료로 해 가지고 결국 수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은 새만금지역 내의 태양광과 해상풍력 그런 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최훈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큰 틀에서는 2050년 탄소제로를 실현하고 우리 수소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국가프로젝트로 하는 것이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그렇죠.

○최훈열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테크노파크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총 소요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이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요, 3,700억으로 해서 국비는 1,288억원 정도 하고 지방비, 그다음에 개인기업 민자 합쳐서 3,700억쯤 되겠습니다.

○최훈열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전북, 인천, 강원, 포항, 울산 합친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아니, 우리 전라북도만…….

○최훈열위원 전라북도만 하는 내용이에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최훈열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또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최훈열위원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로는 기업 20개사 유치하고 고용유발효과가 3만여 명 되고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까지 해서 기대효과 난이 나와 있어요.

하여튼 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가의 장기발전 비전에 부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 갖고, 이게 장기사업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태양광과 해상풍력하고 전기가 일단,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원료로 해서 수소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상당히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

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맞습니다.

○최훈열위원 이 분야는 누가 책임자입니까? 실무책임자.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여기 이송인 단장이 맡고 있습니다.

○최훈열위원 원장님께서야 관심을 갖고 독려하겠지만, 실무책임자시고만요?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이송인 예.

○최훈열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이송인 이송인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단을 맡고 있습니다.

○최훈열위원 예, 그러시고만요?

하여튼 책임감 있게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계획 일정이 착오 없이 잘, 우리 전라북도 계획에 낙오되거나 뒤처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위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2021년도에 취업률이 원래 목표가 80%인데 65%만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55쪽, 56쪽 내용에 보면…….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이게요, 지금 현재 시점을 얘기합니다. 연말까지 가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현재 시점입니다, 올해.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목표를 80%를 삼고 있는데 현재는 65%를 취직을 시켰다 그런 말인가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나인권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현재 교육 받고 있는 인원이 234명이에요, 152명이에요?

뒤에 성과에 보면 취업대상 152명 중에 취업을 99명 했다, 그래서 현재 65%를 취직시켰다는 얘기고요.

앞에 사업목표 및 추진실적을 보면 인력 양성 하는 수가 234명이에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맞습니다. 234명을 참여를 시켜서 교육을 하는 중입니다.

○나인권위원 그러면 총인원 234명 중에 152명만 취업대상이고 나머지 차이나는 한 70~80명은 뭘 인원이에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이게 2개년 과정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인권위원 아, 2년 과정이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나인권위원 2년 과정인데 그러면 80여명은 올해 아니고 내년에 취업대상자입니까?

인원이 그러면 올해 현재 234명 중에 반반이 아니라 올해 취업대상은 152명이고 내년 취업대상은 80여 명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인원?

234명에서 152명 뺀 인원인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이것을 분류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조금 혼란을 주지 않습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인권위원 이 자료가 조금 애매하게 이해가 안 되게 만들어 놔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나인권위원 그러면 자료는 그렇다 하고요.

전례로 봐서 실제적으로 취직이 제가 대중 계산하니까 1인당 1년에 1,400만원 들어가는 게 맞나요? 1인당 1,400만원.

246명을 1년에 36억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면 한 사람당 교육비가 1,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표를, 대학 학자금보다 3~4배 되는 것 같은데 목표를 왜 80%만 잡냐, 이중에 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취직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리기도 하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지금 이 외에는 도외 지역으로도 갑니다.

○나인권위원 도외 지역으로 취직한 사람들은 취직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나요?

어디로 취직하든지, 우리 TP에서 양성을 했으니까 전라북도에 취직한 인원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굳이 전라북도에 취직하지 않고, 이 학생들이 대부분 도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학사나 석사. 졸업한 사람들이면 지역 청년들일 텐데 타지역으로 취업하면 취업인원으로 안 잡아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취업인원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의 원래 취지목적은 인재유출이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정착해서 기업에 취업해 가지고 매출신장도 올리고 뭔가 생산력 향상해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취지거든요.

○나인권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제목 자체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이에요. 지역특성에 맞춰서 전문인력을 양성하

겠다는 건데 양성을 했어요. 그러면 실컷 도비를 투자해서 지역특성화 시켜서 양성을 했는데 그 양성된 인원이 전라북도에 남기를 바라기 위해서 목적을 추진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 일부 청년들은 타지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걸 막을 수가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업에다가 어떤 인원들이 필요한가 맞춤형교육을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맞춤형교육을 해서 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인재들 3~4학년들을…….

○나인권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제적으로 80% 목표 삼아서 80% 거의 달성하는데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은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거의 취업한다고 봐야 됩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저희들이 목표가 80%인데 학생들 눈높이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데도 있고 자기 눈높이 되는 데는 취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타지역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인권위원 그러니까요, 지역특성화를 맞춰서 맞춤교육을 이미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거니까 100%는 안 돼요. 그래서 목표를 80%로 삼았어요. 타지역에 가는 것들에 대한 인원은 전혀 통계에 안 잡히고 어떻게 되는지, 여기 통계에 나오지 않은 청년들은 전혀 어떤 형태인지 자료가 없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별도로 제가 자세히…….

○나인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별도로 이 전문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표를 드리

겠습니다.

○나인권위원 별도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위원 업무보고 책자 97페이지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해연도가 15억 정도 배정됐습니다. 그중에 주된 게 테마체험관 시설보수랄까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이 사업진행 현황은 어떻게습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지금 거기에다가 60억을 투입을 해서 테마체험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옛날 시설들은 오래돼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을 해서요, 거기에 거의 AR, VR 이런 것들을 전부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거기다가 설치했고요.

지금 시운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코로나만 없었다면 개관을 할 텐데…….

○두세훈위원 지금 거의 다 리모델링은 완료된 상태네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도의회하고 도와 상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두세훈위원**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 돼서 다시 리모델링된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해서 우리 도민과 국민한테 선보여서 정말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특히 수소체험이랄지 이런 부분들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디자인센터장님!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철수** 지난 4월달에 오셨다 했죠?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약 100일 정도 되셨네요?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예.

○**위원장 김철수** 업무과약은 좀 되셨겠네요?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예,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지금 업무과약 중에 보고 앞전에 했던 일과 또 센터장을 맡고 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꼭 새롭게 개선할 점이 있다라든가 또 새롭게 하고 싶다는 일이 있었던가요?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철수**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우선 저희가 단적인 예로 기업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화 쪽, 관광 쪽, 도로 사인이

라든지 이런 환경관리 이런 것도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융합적으로 하는데 실무진에서 약간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도내에서 하는 것 외에도 국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도 좀 얘기를 더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도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 그전에 어떤 것을 했었는가 그런 것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일부러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전임 센터장님이. 작년 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 관련해서 또 포럼 관련해서 수혜기업 CEO들 관련해서 저희가 모아서 디자인 인식강화 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태가 좀 나아지면 저희도 그런 걸 다시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부터 하반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아까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발전안 준비가 내부적으로 끝나는 대로, 조만간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하고도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롭게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예, 그렇습

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종전의 어떠한 사업과 전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교를 해 보면.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에 대해서 2020년에 저희가 만든 것을 일단 계획을 수행하느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중장기 발전안은 금년 끝나는 동안 하반기 동안 저희가 그것이 대내외적으로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전북지역에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직 도의회까지는 제가 내부적으로 준비한 자료 때문에 직접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익산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익산시에서 귀금속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해 하세요.

처음에 설립됐을 때 디자인센터의 건물이 그쪽에 위치하게 된 연유들도 있고 해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도 시간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 보고서에서 보고 계신 내용들은 주로 2020년에 전임 센터장님이 해 놓으신 것을 저희가 오자마자 3개월 동안 이거는 아니다 하고 다 뒤집어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계획된 부분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두 트랙 중의 한 트랙은 갖고 나머지 한 트랙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발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시간을 쓰느라고 굳이 하반기 사업 계획했던

거를 큰 틀에서 어긋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시다.

○위원장 김철수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2020년부터 해 왔던 일이라서 사업이 다 무리가 되지 않아서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철수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사업이 계획이 서면 저희한테 와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안 그래도 저희가 보고일정에서 도의원들 만나 뵙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도 들어야 될 얘기들도 있을 거고 해서 꼭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잡아서 새로운 사업이 계획이 되면 저희 의회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사업 책자에 보니까 여러 사업이 많은데요, 여기에는 인원편차는 없어가지고요, TP하고 도내 대학하고 산학협력으로 같이하는 사업 있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아까 그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이 그런 전형적인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그 하나가 이 많

은 사업 중에, TP가 이번에 1년 예산이 얼마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금년 예산이 1,400억 정도 됩니다.

○두세훈위원 1,400억인데 TP가 어쨌거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과학기술적으로 관련된 분과인데 우리 도내 이공계 대학과 어떤 산학협력, 얼핏 보면 제목만 보더라도 산학협력하고는 다소 문외한 것 같아요.

한번 TP에서 산학협력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자료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세훈위원 그래서 많이 부족하면 어떻게 좀, 산학협력을 해야 거기서부터 도내 대학 이공계와 어떤 인적 네트워크화해서 더 좋은 자원들이 TP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런 선순환구조를 TP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 직원이 한 167명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연구직 직원들도 있는가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지금 저희가 정규직으로 사람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9년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일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전환직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승진이 안 돼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들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직군통합을 한다든가 혹은 직군내 별도의 승진체계를 마련해서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이.

그런데 그 기술을 요하는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지식에 대한 강화를 할 수 있는, 현재 갖고 있는 지식은 자꾸 변화를 하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고 새로운 특허 여러 가지로 변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식을 습득하고 직원들이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테크노파크에서는 해 나가는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올해 3월 17일날 농산업경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가지고 저희들이 2강2혁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직급별로 간담회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역량강화 측면에서 조직을 진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개편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걸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전북도와 도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조직은 당연히, 지금 연구직과 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이젠 서서히 고쳐 나간다고 하더라도 가령 신재생에너지, 탄소, 수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소한, 저희들은 그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생소한테 지금 현재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오는 것에 따라갈 수 있어야 기업이

나 또 발전해 가는 것을 같이 호흡을 맞출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냐 제가 그걸 한번 묻는 거예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직급별 전문교육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특수한 분야는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별도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디자인센터 자꾸 오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묻는데 센터장님한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수 예, 말씀하십시오.

○이한기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디자인은 전문직 아닙니까? 그런데 13명이에요? 디자인센터에 종사하시는 근무자가.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예,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13명 중의 몇 분이, 여기 시각디자인도 있고 산업디자인도 있고 디자인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그 전문분야에 몇 분이나 디자인 전문…….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오늘이 또 마침 인사이드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를 빼고 책임으로 한 분 계신 분이 그래픽 쪽에 조금 일을 하셨고 그 외는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픽 쪽에…….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그래픽 쪽에 1명 있고 제가 산업디자인을 전공했고 그 외는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나머지는 디자인이 전문직이 아니라고요?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전체에서

현재 디자인센터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디자인센터가…….

그거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내가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디자인센터에 전문직이 경력이 얼마나 되고 직원 현황을 요구하려고 그랬거든요.

디자인센터가 최소한,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센터장님하고, 센터장님이 산업디자인이고 또 시각디자인 한 분 있다고요? 아니, 그래픽?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이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가 커지는데요,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각 부서별로 저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아니, 그 인사권이 아니라 제가 묻는 건 현재 디자인센터에 있는 것을 묻지 다른 거 눈치보고가 아니라.

인사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디자인센터가 전문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진 분이 몇 분이 있냐고 내가 묻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저한테 얘기해 주면 되지 그것을 인사권자고 어찌고 그런 건 필요가 없잖아요.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말씀해 드린 대로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기위원 예, 그러면 원장님이 한번…….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현재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제대로 디자인센터면 디자인 전공자가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하는데 좀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쪽 방향에 디자인 전문가를 더 모집해서 충원해서 전문성 있는 일을 해서 고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왜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나 보구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블라인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분야를 뽑기가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떤 분야의 전공자를 미리 공고해서 뽑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정부 방침이 블라인드 면접을 해서 전공이나 이런 걸 다 없애고 채용을 해라.

○이한기위원 아니, 디자인센터니까 일단은 자격요건에 아무리 블라인드 면접을 하더라도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전북도디자인센터에는 시각디자인학과를 나왔다는가 아니면 거기에 몇 년을 어디에서 종사를 했다는가 이렇게 응모기준을 정해 놓고 블라인드 면접을 봐도 보는 것이지,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아예 거기에 응모를 못할 거 아니에요.

한데 디자인센터에 디자이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있다, 이걸 나는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디자인 쪽에도 단순 기업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는 디자인 전공에 부합된 일을 하는 분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디자인센터라 해서 전부가 디자인 전공을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거기서 일부 한 60% 정도는 디자인 쪽의 전공인이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순환배치로 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서 뭔가 조직이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한기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먼저 역량강화를 물었던 것이 사실 제가 이 앞에 전반기에 문건위에 있을 때도 우리 TP뿐만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진흥원 같은 데다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야 전라북도에 있는 TP가 관장하는 기업이나 이런 기술을 다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데를 어떻게든지 행정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쪽에 있는 분들보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 모자르게 되면 그쪽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수한 인력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도 이쪽은 별도로, TP를 왜 만들었습니까?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TP가 대신 해 달라고 전라북도가 이렇게 TP를 만들어서 맡긴 거예요. 맡겼으면 그 맡은 만큼 훨씬 더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보수도 더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수한 인력이 오지. 안 그런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투쟁을 해서 더 보수를 주고라도 더 나은 인재를 가져다가 여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원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아이고, 정말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딱 1분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한기위원 말씀하세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제가 이쪽

들어와 가지고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때보다도 열 배 이상의 고도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해야 한다는 걸 첫째 조건으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한테 건전한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전문성을 기르자. 그게 최종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전문성을 기르느냐, 그걸 항상 저는 고민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해서 자기 자신이 평소 때보다 두 배 세 배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 TP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TP가 되려고 저는 몸과 헌신을 바쳐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라북도TP가 아, 거기는 이렇게 문턱도 높고 들어가기도 힘들더라. 거기를 들어가려면 내가 이러한 기술과 이러한 스펙을 쌓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다 할 정도의 위치를 세워놓는 것은 우리 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우리 부장님이나 단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선 여기 계시는 분들 먼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나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을 해야만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전라북도 전체 있는 기업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관장하고 계시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현재 디자인센터 13명이면 아무리 못해도 반절 정도 5~6명은 그 분야의 디자인을 전공한 분들이 있는지 알았어. 그러면 그분들

한테도 아까 얘기했듯이 더 교육을 강화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해야만이 전라북도디자인센터가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한테 좋은 것을 베풀어 낼 수가 있죠. 안 그런가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맞습니다.

저희 연말 돼가지고요, 조직 대 개편할 적에 도와고 상의를 해서요, 우리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걸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네.

진짜 이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구조를 바꾸는가 행감 때까지 한번 보겠어요,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바뀌나갈 것인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행감 때보다는 내년 연초에나 가야 될 것 같아요.

○이한기위원 어떠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참 문제가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위원 원장님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현재 디자인센터에 디자인 전공자가 센터장님 외에 한 분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않아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정호윤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러면 그동안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직원들을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 사람을 채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디자인센터가…….

제가 2020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여기에 배치돼 있는 상태라 그때는 어떻게 됐는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호윤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죄송한데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런 직원을 뽑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그런 직원을 뽑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지금 디자인 관련 전공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공예에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디자인 쪽에 2명 있어요.

지금 현재 합해서 4명인데요, 앞으로는…….

○정호윤위원 잠시만요. 12명 중에서 네 분은 디자인 전공자예요. 그러면 나머지 여덟 분들은 디자인 전공이 아니신 거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전공이 아닌…….

○정호윤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디자인 전공이 아닌데 어떻게 디자인센터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겁니까?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잠깐 도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윤위원 아니, 잠시만요.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예, 알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전공자 아닌 직원이 이미 채용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정호윤위원 직원이 채용이 이미 되어 있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기존 8명은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기 이전에 채용이 되어 있

었는데 디자인 전공자가 아님에도 채용이 되어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정호윤위원 그러면 직원채용 자체가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디자인센터인데 디자인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게 이게, 우리 전라북도 기관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원장님, 그게 확실한 겁니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여쭙보는 거예요. 정확한 겁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제가 그 당시에 행정실장 하시는 분…….

○정호윤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력배치보다도 그렇게 된 데 또 연유가 있어서 조금 도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예, 말씀해 보세요.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감사합니다.

현재 디자인센터는 도의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재 저희한테 설립 이후로, 제가 기록을 본 바에 의하면 설립 이후로 받은 예산들이 대부분 기업지원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업무들의 기록을 보면 디자인 주도 관련해서 수혜기업에게 공급기업 디자인 전문업체를 매칭해주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센터를 하더라도 여타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위시로 해서 각 광역시에 있는 디자인진흥원과 달리, 거기에는 R&D 기능이 있습니다만. 여기 현재 디자인센터는 테크노파크하고 비슷하게 다른 부서들과 비슷하게 어떠한 주제를 갖고서

기업 지원하는 게 주된 업무다 보니까 그런 R&D 관련해서 특별히 해야 할 니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그전에 디자인센터가 운영돼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센터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디자인 전문업체를 이해하고 매칭을 해 주고 이러는 데에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게 도움이 되지만 주요업무가 저희가 일자리경제본부 하고 같이 하는 게 기업지원 행정업무가 더 많다 보니까 주업무가 되고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지만, 더 많으면. 그런 현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윤위원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내용 자체가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디자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이니까 일반 행정업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한데 그래도 이름이 디자인센터라고 하면 디자인 관련해서 전공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한번쯤 자기의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런 의식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요, 우리 디자인센터 직원채용 지금까지 현황들 있죠? 그거 자료로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정호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 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업무 보고는 간략하게 질문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다가 테크노파크에서 중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소상히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위원장 김철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의 신기술 촉진과 기술 고도화 지원 등으로 우리 도 신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견

○위원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견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입니다.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다해 주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기술원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소기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성원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같이 참여한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단 노윤식 단장입니다.

미래기술연구본부 김영균 본부장입니다.

융합기술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기업상생협업본부 방동훈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문남수 본부장입니다.

도의 혁신성장산업국 주력산업과의 조광희 과장 함께하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기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에는 없는데 지금 대세가 캠핑카 그리고 일반차량을 개조해서 차박 그런 것이 상당히 말도 못하게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캠핑카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가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우리 김제 특장차단지하고 군산 쪽에 캠핑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거기도 우리 융합기술원에서 캠핑카까지는 같이 융합하는 거 뭐가 있는가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당연히 저희들이 같이 R&D를 지원해서 관련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려면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내부구조도 그런 것들을 R&D 자금을 지원도 해 주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들도 같이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거기에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걸 그보다도 앞으로 더해서 그 분야에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확실하게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원장님이?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래서 지금 김제에 특장차 2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그게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290억을 투자하는 특장차 안전신뢰성 관련된 연구기반 구축과 관련된 국가사업도 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

석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럼 캠핑카도 특장차로 그렇게 들어가는고만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전라북도가 그렇게 잘 가고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아까 설명서를 들으니 올해 끝나는 사업이 제법 많이 있네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몇 가지가 올해 끝나는데 그러면 올해 끝나는 사업이 있는 대신 내년에도 또 신규로 공모에서 많이 사업을 따올 것이 있는가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국가사업으로 신규로 진입된 아까 특장차 관련된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3단계 사업 이런 것들만 해서 벌써 2개만 합해도 약 8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고, 그다음에 지방비를 투자해서 검토해야 될 과제들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자동차산업이 새롭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됐으니 이걸 이때 한번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원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더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부연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22개 사업 방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절반 이상이 올해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내년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다 보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를 확보하고 지속사업으로 하는 게 한 8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 후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다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기 내지는 장기적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제가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던 상용차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중반부에, 상용차 발전과 관련해서 20개 사업을 발굴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발전협의회도 설명하고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됐습시다만 그 사업들 20개 사업을 이미 발굴을 해서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20개 사업 발굴을 하셨는데 그중에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발굴한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저희들이 20개 사업을 쭉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게 12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8개 사업은 지방비 내지는 각 시·군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게 8개 사업입니다.

○**송성환위원** 그게 8개고 12개 사업은 국비확보 사업.

그러면 그 목록을 한번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으로 사업의 주된 내용이 어떤 건지까지 그렇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저는 12쪽 한번 봐주시죠.

세출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6월 말 기준이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국주영은위원** 100%가 안 된 수입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도 지금 어쨌든 반절이 지났는데 집행률이 낮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 주시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먼저 세입과 관련된 것은 6월 말 기준으로 69.4%인

데 제가 오기 전에 7월 말 현재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7월 말 현재는 78.9%입니다.

그래서 판단컨대 적어도 10월, 11월 정도 되면 거의 다 100% 세입 부재는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세출문제는 저희들이 한 가지 애로가 있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사업과 연결되는데 국가사업은 보통 정부하고 협약을 빠르면 4월, 늦으면 5~6월달에 협약이 끝납니다. 협약이 끝나면 그때부터 국비가 저희들한테 송금이 되거든요. 이게 국비가 순수하게 저희들한테 송금이 되는 걸 순서로 하다 보니까 지출문제가 하반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이 되면 상당부분 목표가 달성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저희들이 애로는 연차사업이 있습니다. 상용차 혁신성장사업, 테스트베드사업, 배터리 전주기사업 이런 것들이 3년 내지 4년 되는 사업들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월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수입되고 그러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 업무 보고를 받으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출집행에서 상당히 저조하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장차에 대해서도 나오고, 차를 크게 나누면 특장차하고 상용차하고 이렇게 나뉘지는가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상용차 안에 특장차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럼 완성차라고 해야 되는가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완성차하고 특장차로 이렇게 나뉘지는가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아니요, 완성차 하면 완성차 안에는 승용차, 상용차, 특장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완성차 내에 특장차도 있고 승용차, 상용차 이렇게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위원장 김철수** 그래요. 그러면 상용차보다도 우리가 특장차를 보면 자동화라 그럴까요? 이게 특장차 부분이 많이 떨어지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특장차는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징입니다.

왜냐면 소방차, 앰블런스, 렉카차, 캠핑카 이런 것처럼…….

○**위원장 김철수** 믹서차 이런 것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이렇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장차의 특징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대부분 수작업으로 많이 하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위원장 김철수** 물론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특장차 부분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다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도 많이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특장차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정개선 문제라든가 쾌적한 환경조성 문제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도 조금 더 진전된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반기 때 계림에 대우자동차가 있더만요, 중국에.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위원장 김철수** 거기는 우리 기업체에서 나가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중국하고 합자회사인가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지금은 별도 지분일 겁니다.

○**위원장 김철수** 별도로?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위원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장차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자동화가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우리 전북이 특장차의 최고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아까 말씀 들었는데 특장차가 엄청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송성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위원** 원장님, 우리 도내 대학이라고 할까요?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내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연관해서. 그런 대학이나 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지금 거의 도내 대학하고 자동차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은 하고 있고요.

특히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비전대 또는 군장대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 하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 혁신 성장과 관련된 것은 군산대, 전북대 이런 데하고 다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실제로 그 학교에서 배출하는 인재들이 우리 융합기술원에서 실제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저희 기술원에 지금 현재 채용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은 전국 베이스로 해 가지고 전기전자 쪽 분야에 인재를 채용하고 있고 도내 대학하고 인력양성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맞춤형으로 취업하는 그런 쪽으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그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저희들이 관련된 기업지원사업비를 그 해당 대학에 줘서 인력양성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운

영하고 거기서 그놈에 의해서 해당 기업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는 그런 업무보고는 없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여기 내용에 기업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하나 제가 요구를 할게요. 도내의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관련된 도내 대학 및 학과, 그다음에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위원** 원장님, 특장차 제2단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고 계신 대로 말씀 잠깐 해 주시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올 연말까지 관련된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나인권위원** 2단지?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그런 건 마무리될 거고 거기에 지원센터 겸해서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특장차하고 안전 및 신뢰성 평가 연구센터를 거기다 유치를 하면 그곳에서 캠핑카를 만들든 소방차를 만들든 렉카차를 만들든 그런 기업들에 필요한 신뢰 안전성 관련된 평가장비를 비축해 놓고 그걸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2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이 MOU를, 약 20개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서 입주하는

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권위원 현재 그러면 2단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한 10만평 까지 확보했습니다.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 중에 자료요구라든가 또 기술원에서 중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및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 및 지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도 자동차 관련 기업이 기술적으로 급성장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ECO융합섬유연구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견

○위원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5항 ECO융합섬유연구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견을 상정합니다.

김남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영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박용완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장재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팀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과인 혁신성장정책과 송금현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원의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2021년도 상반기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남영 원장님께서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계에서 소부장 그 얘기는 아시죠? 우리 기술의 자체 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일본과의 상황에서도 다뤄졌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는 KF94 정도 하는 원사 있잖아요? 이것을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다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현황 아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수입 통계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장 김철수 마이크 좀 켜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마스크에 대해서는 방염마스크, 마스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KF94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거고요, 방염이라든가 방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마스크도 있고.

저희가 작년 들어서 마스크 종류는 세 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업계하고 해 가지고요. 하나는 방염 쪽이 있고 스마트마스크 이렇게 해서 마스크 쓰고도 송신도 가능하

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방연, 연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전부 수입하고 어찌고 한다는 것은 저희는 수치액은 잘 모르겠고, 다만 마스크 시장이 옛날에는 일반 황사라든가 이런 용도로 많이 썼지만 앞으로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되고 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업체 발굴을 해서 현재 세 종류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방금 말한 대로 세 가지 종류인데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러스를 위한 KF94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델타바이러스니 뭐니 해 가지고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는 불길한 예감 속에 있는데 한번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어떻게 그것이 조달되고 뭐하냐, 그러니까 위기만 있지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자료는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최훈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ECO섬유 연구원에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희가 알고 있는 점유 도내 업체는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6~7개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60개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것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원사를 이 재료를 다 중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우리 한국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이지 실제 원재료는 다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제가 알기로는요, 국내가 마스크에 대한 부직포 생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케파를 많이 늘려가지고, 초기에는 사실 수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마스크형보다는 공기청정기라든가 주로 산업용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서 마스크업체까지 공급해 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인도 별 군데에서 규격에 미달된 품목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식약처에서 상당히 강화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국내에서도 부직포가 남아가지고 과잉생산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싸게, 옛날 가격의 5분의 1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최훈열위원** 그 자료 현황이 있으면, 현황이 없으면 모를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희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훈열위원** 찾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품매출 9천만원이죠? 고용창출 1명 이건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이것은 그 사업으로 해서 상반기에 이루어진 결과치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왜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아니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이유는 아니고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하반기에 다시 또 조사를 하면 그 사업을 하면서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또 끝난 과제는 이미 실적에서 빠져버리거든요. 과거 과제는 빠지고 신규 과제 들어와 가지고 상반기 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수** 그러니까 제품매출이 9천만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신한방직을 보면 모다크릴 혼방 방직사 개발을 해서, 지금 융합섬유연구원에서 기술 해서 이전해준 건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이전한 거 저희들하고 같이 기술개발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철수** 어찌 됐든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얘기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주체는 항시 기술개발은 기업이 주체가 되고요, 저희들은 거기 가서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 시험분석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해서 기업하고 해서 성공리에 맞춰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위탁기관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나서가지고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선도가 되는 거고 저희는 서포트해서 그 사업을 완성시켜 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철수** 9천만원 매출을 상반기에 이뤄냈는데 고용창출은 1명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기도 보면 2명, 1명, 1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어떠한 저기가 필요할 건데 고용창출이 이렇게 적게 되는 이유가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불펜을 만든다고 하면 이걸 또 기술개발 해서 더 성능을 좋은 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감정이 있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기존 인력은 있는 거고요, 사업을 하면서 공정이 더 필요하다는가 보강한 다든가 자재 구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용이 창출되는 거죠.

○**위원장 김철수** 거기까지도 제가 이해를 했어요. 원장님 말씀한 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게 적게 되는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건 기술개발의 성격에 따라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새 라인을 깎는다는가 새로울 경우에는 인력창출이 많이 되겠죠. 매출도 많이 커질 거고요.

○**위원장 김철수** 기존에 있는 기술에다 조금만 더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적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이런 경우는 적을 수가 있죠.

어떤 경우는 기술개발 해서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성과가 안 나오니까 빠져버리겠지만 공정개선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3명이 할 걸 2명으로 하니까 1명이 더 잉여인력이 남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아니면 신산업을 해 가지

고 기존에 있는 불펜이 아니라 다른 만년필을 만든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것은 설비도 들어갈 거고 인력도 창출이 되고 매출도 확 뛰겠죠.

○**위원장 김철수**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기술개발을 해 놓고도 고용창출이 너무 적지 않느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업무를 덜기 위해서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을 적게 하고 자료요구도 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주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섬유산업의 기술혁신과 섬유 신소재 개발 등을 선도하여 전북 신성장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남영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3.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5.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
요업무보고서**

**6.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 | |
|--------------|-----|
| 전략기획단장 | 노윤식 |
| 미래기술연구본부장 | 김영균 |
| 융합기술연구본부장 | 사정환 |
| 기업상생협업본부장 | 방동훈 |
| 경영지원본부장 | 문남수 |
| <ECO융합섬유연구원> | |
| 원장 | 김남영 |
| 전략기획본부장 | 정우영 |
| 연구개발본부장 | 박용완 |
| 행정지원실장 | 장재호 |

○전문위원

김종식

○출석위원

| | | |
|-----|-----|------|
| 김철수 | 나인권 | 국주영은 |
| 두세훈 | 송성환 | 이한기 |
| 정호윤 | 최훈열 | |

○서명위원

김철수

○출석공무원

<혁신성장산업국>

| | |
|-----------|-----|
| 국장 | 전병순 |
| 혁신성장정책과장 | 송금현 |
| 주력산업과장 | 조광희 |
| 탄소바이오산업과장 | 이찬준 |
| 신재생에너지과장 | 나윤화 |

<전북테크노파크>

| | |
|-------------|------|
| 원장 | 양균의 |
| 정책기획단장 | 이영미 |
| 기업지원단장 | 문성식 |
|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 이영춘 |
| 전북디자인센터장 | 남궁재학 |
| 지역산업육성실장 | 유기연 |
|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 김영권 |
|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 이송인 |
|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 | 최상호 |
| 행정지원실장 | 박기성 |

<자동차융합기술원>

| | |
|----|-----|
| 원장 | 이성수 |
|----|-----|